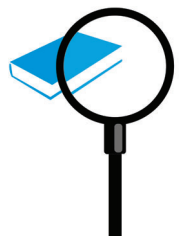


인생의 순간, 예술로 피워낸 화가들의 '꽃' 이야기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꽃을 그리는 마음

이옥근 지음

옛그제 매화가 피었던 것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다. 시나브로 봄꽃들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한다. 길거리 정원에서 만나는 5월의 장미는 화사하면서도 아름답다. 벗꽃은 지고 철쭉과 수선화도 어느결에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수국과 라벤더와 같은 꽃들이 점점 향기를 발할 것이다.

앙리 마티스는 이런 말을 했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다"고. 꽃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꽃이 보인다. 말일 게다.

예술가들에게 꽃은 특별하다. 그 자체로 더없이 좋은 그림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예술적 감수성이 남다른 이들이기에 꽃은 가장 좋은 벗이자 심미적인 안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유명 화가들이 꽃을 자주 그렸던 것은 그런 연유에서였다. 꽃에 자신의 심상을 투영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 꽃그림을 매개로 화가의 미묘한 감정을 유



추하고 추축할 수 있다. 다양한 꽃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이옥근 박사의 '꽃을 그리는 마음'에는 꽃 그림에 관한 25가지의 에피소드가 펼쳐져 있다. 그림 속에서 자연물에 담긴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찾는 데 관심이 많은 저자는 이번에는 화가들의 꽃그림을 매개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울러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비롯해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폴 고갱의 티아레 꽃, 마리 로랑생의 꽃 정물화 등 명화 속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꽃 그림은 이집트 벽화의 수련이다. 기원전 1570~1085년경 이집트의 고분과 신전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불교적 의미의 연꽃 그림은 이집트 수련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집트에서는 푸른 수련이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시키는 힘이 있다고 봤다. 사막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나일강의 푸른 물줄기와 수련을 동일한 생명의 상징으로 봤다는 예가. 축제나 제례, 종교의식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수련이 지닌 강렬한 향기를 일상에서 즐겼기 때문인데, 벽화 속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에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남부에 자리한 프로방스 지역은 따뜻하고 햇살이 좋다. 이곳의 봄의 전령은 아몬드 꽃. 화가들은 꿈속 같은 화사함에 매료되는데 파리를 거쳐 아를에 도착한 빈 고흐도 예외는 아니었다.



빈센트 반 고흐 '유리컵에서 피어난 아몬드 꽃의 봄'

'꽃이 피는 아몬드'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그림은 고흐가 아를에 도착한 1988년에 탄생했다. 자신의 고향 네덜란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에 고흐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꽃송이가 피어난 아몬드 가지를 꺾어 컵에 담았고 그림으로 완성했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양귀비 들만'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한때를 모티브로 한다. 그림 속에는 한 여인과 소년이 등장한다. 바로 모네의 아내인 카미유와 아들 장이다. 가족의 일상은 모



앙리 루소 '꽃다발'

네가 누린 안정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전에 그는 끼니를 잊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또한 책에는 환상과 실림의 순간을 포착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비롯해 '해바라기가 있는 정원'도 소개돼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연의 풍경은 추상적 감동을 선사한다.

이밖에 강렬하고 감각적인 색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앙리 마티스의 '빨간색의 하모니', 다채다능한 세관원이었던 화가를 꿈꾸었던 앙리 루소의 '꽃다발', 현대사회의 이면을 담은 '최초의 모더니스트'인



에두아르 마네 '흰 라일락과 장미 꽃병'

에두아르 마네의 '흰 라일락과 장미 꽃병'에 담긴 이야기와 그림을 보는 맛도 깊고 그윽하다.

저자는 "인생의 화창한 순간, 또는 괴롭고 불안한 순간을 꽃에 비유해 그림으로 그렸던 화가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게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며 "독자들도 평소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그 꽃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나아가 명화가 주는 감동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즈덤하우스·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장 세노 지음, 주진우 옮김

역사에 대한 정의는 유사 이래 많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역사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논쟁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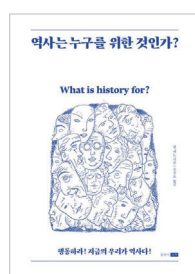
역사가 무엇이라는 접근보다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접근했던 역사학자가 있었다. 소르본느 대학, 파리7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평생을 현실문제에 전착했던 장 세노가 주인공이다. 생전에 그는 '순원', '중국어운동사', '베트남' 등과 같은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이번에 출간된 그의 저서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여전히 오늘의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50년 전 1970년대에 발간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의 역사학이 관념에 빠져 있지 않고 현재의 구체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시간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귀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역사학의 역할은 미래로의 문을 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과거는 미래와 관련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중요하며 현실은 과거를 필요로 한다.

저자가 이번 책을 썼던 것은 억압적 지배체제가 만들어놓은 역사적 지식을 거부하는 데 있었다. 그는 역사를 역사학자들의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민중이 '역사의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였다.

전 런던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제프리 바라클로프는 "세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 틀에 박힌 그림을 그리도록 한 왜곡과 은폐에 대해 분노한다. 그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리슬리와, 루이 14세, 나폴레옹 등에 의해 형성된 '위대한 중앙집권적 프랑스 민족국가'라는 신화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박탈당한 남부 프랑스 옥시탕의 사례를 들고 있다"고 평한다.



〈포북·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

아메데오 발비 지음, 김현주 옮김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우주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지극히 단편적이었다. 과학자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작은 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다. 점차 과학이 발달하면서 경이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우주의 먼 곳까지 탐험을 하면서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나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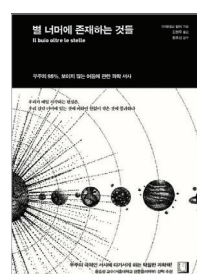
'왜 밤하늘은 어두울까'라는 의문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짙고 깊은 어둠에 대한 논쟁은 우주에 관한 여러 논쟁 가운데서도 지적이면서도 본질적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천체물리학자이자 로마 도르 베르가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아메데오 발비가 쓴 '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은 별빛 너머 우주의 어둠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우주배경복사의 비등방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며 우주 구조가 평면 구조임을 확인했다. 우주를 둘러싼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쓴 과학 논문만도 100편이 넘는다. 특히 그는 우주론 계수들의 값을 세계 최초 정확히 측정하고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진 암흑 성분의 주제가 단순히 과학자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류가 별빛 너머에 있는 어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사 과학이 증거의 부재를 이용해 '관측 불가능성'에 기초한 불가지론에 기대 과학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어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우주론을 정립하고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95%의 우주'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고 강조한다. 〈북인어바스·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당 있는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김진경 지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전원주택 생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당 있는 주택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진다. 로망을 실현해 사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곳이 직접 지은 집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경기도 양평에 집을 지으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에세이 '마당 있는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가 나왔다. 저자 김진경은 아파트 전세 재계약 앞두고 건축가 남편의 오랜 꿈이었던 내 집 짓기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한다. 무려 30대의 젊은 나이이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던 단독 주택부터 고시원, 아파트 등에 옮겨 살다가 마침내 자연에 둘러싸인 양평 문호리에 정착한 저자는 집 짓고 살아보니 매일이 여행하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양평에서는 매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다 보니 남편도 나도 많이 유해졌다. 남편의 출근길에는 북한강이 함께한다. 봄이면 벚꽃으로 유명한 북한강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데 출근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일인가, 매년 감탄한다고 한다."

도시 한복판 아파트가 아닌 자연 속에서 집 짓고 사는 즐거움은 기대 이상이다. 별다른 지식이 없던 틈틈이 마당에 나가 식물들을 살피고, 집 주변을 둘러보고, 연하게 내린 커피를 홀짝이며 식탁에 앉아 창밖의 자연을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일이다.

책은 1부 '나를 만든 공간들', 2부 '우리가 집에 담고 싶었던 것', 3부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로 나뉘었다. 마당 있는 전원주택에 살게 되기까지 집짓기 전후 과정부터 완성된 집에서 살아가는 일화를 기록했다. 말미에는 집 짓는 과정과 공정별 사진,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Q&A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6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